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미: 이 책을 쓰는 이유와 목적

서 문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Why I love the apostle Paul

존 파이퍼(1946년 1월 11일-). 침례교 목사, 위튼 칼리지, 플러 신학교, 독일 뮌헨 대학에서 신학 박사, 1980년,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아폴리스 베들레헴 침례교회 33년 목회, 2013년 3월 31일 고별 설교, Desiring God Ministry, 현시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복음주의 크리스천 중 한 사람, 큰 영향력, 설교를 들으면 생동감 있게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사, 전립선 암 투병,

우리는 30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강해를 마쳤다. 엘버트 반즈, 위어스비 사도 바울의 생애 강해하는 시점에 이 책이 나왔다. 가장 영향력 있는 현시대 목사의 글, 30편, 사도 바울의 여러 면 소개

바울은 거짓말쟁이, 광신자(정신병 환자), 혹은 사랑받는 자인가

나는 바울과 함께 근 60년을 살았다. 존경하고 흠모하고 두려워하고 기의 말을 암기하고 강해하고 시를 쓰고 그의 고통을 보고 울었고, 로마서를 8년 동안 강해하며 그를 닮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10편을 산다 해도 그의 고통에 근접하지 못할 것이다.

2000년 전에 산 사람의 생애를 알 수 있을까?

그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편의 서신(혹은 14편)과 그에 대한 기록인 사도행전을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역사책이다. 이것들을 통해 바울을 알 수 있을까?

파이퍼의 말: Yes!

그를 알면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 그를 사랑하고 믿든지 사기꾼으로 여기고 미워하든지.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간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고 불쌍히 여기든지 어쨌든지 그는 실제 인물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세 가지 반응,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 혹은 주님

요8:58; 10:30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인류를 속인 거짓말쟁이, 혹은 스스로 자신을 속인 자, 혹은 그의 주장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길이 없다.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 혹은 주님,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요즘은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인다. 전설이다. 즉 그분에 관한 모든 기록은 실제 그분이 한 것이 아니다. 다 전설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다 사실이 아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역사적,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어떤 역사학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바울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 학자들도 그의 서신서는 사실임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논증(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 혹은 주님)은 바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는 주님이 아니므로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 권위 있는 대변인으로 말할 수 있다(갈1:1, 11-16, 고전14:37-38, 15:1-9; 20-25 등)

사실이 아니라면 미친 사람의 말

그래서 우리는 그가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 혹은 주님의 권위 있는 대변인 나는 주님을 60년간 믿어 왔다. 가끔씩 묻는다. “왜 나는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를 믿는가?” “그리고 왜 나는 그 진리에 나의 전 생애를 세우고 있는가?” 즉 신약 교회를 한다.

이유: 진정으로 나는 그를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한 자라 할 수 없다. 나는 그의 글을 통해 그를 신뢰한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룻밤 사이에, No!

그를 아는 데서 나온다. 사람을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여러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린다. 연구하면서 혼동이 생기기도 하고 모순에 걸리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공부하면서 더 그를 사랑하게 된다.

그는 세태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2000년을 거치며 살아왔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가 아님을 알아내는 기준, 사랑을 판별하는 기준과 같다.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건전하다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흠모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 대한 사랑을 글로 기록하게 되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게 된 여정은 하나의 여정이었다.

두 종류의 사랑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는 근본적인 이유: 내 사랑은 감사의 사랑, 흠모의 사랑

나는 그가 인생을 바치면 가르쳐 준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사랑한다.

동시에 나는 인간으로서 그가 가진 성품, 장점을 흠모한다.

그의 말들을 나를 구원으로 이끌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을 지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의 신비를 가장 깊게 내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빼고 인간들 가운데는 바울이 내게 가장 큰 인물이다. 감사의 흠모의 인물

이 글을 통해 바울이 감사해야 할 인물 흠모해야 할 인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제시하려는 것은 완전한 그의 일대기가 아니다.

이것은 나 개인이 그에 대해 느낀 바를 쓴 것이다. 즉 내가 그에 대해 느끼는 애정이다.

여러분도 바울에 대해 그를 좋아하는 이유를 기술할 수 있다. 아마 나와는 다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게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의 위대함을 보여 줄 뿐이다.

나는 그의 성품의 모든 것을 나열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나는 그가 믿을 만한 증인임을 보여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흠모하는 이유들을 모으면 그는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임을 확신하기 바란다.

바울은 하나님이다. 그는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최고봉이다. 죄가 없는 분이시다.

바울은 나의 인성을 공유하되 특히 죄 많은 인성을 공유한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함을 성취하였다. 그것도 고통을 통해서

나는 그가 알려주는 그리스도로 인해 그를 사랑한다.

그가 열어서 보여 주는 그리스도의 위대함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그의 위대한 인품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그의 성품은 다양함을 보여 준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통해 내가 왜 그를 사랑하고 흠모하는지 보여 주려 한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기를 바란다.

나는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

총 30편의 글

1. 그의 변화(1-5)
2. 내 삶을 변화시킨 사람에 대한 사랑(6-10)
3. 논리의 사람, 사람의 사람(11-14)
4. 신비들을 노래하게 하는 사람(15-19)
5. 귀중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사랑(20-24)
6.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한 사람(25-29)
7. 바울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30)

25-30분 정도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2부: 살인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인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회심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살인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는 엄격한 바리새인(행26:5), 당시 가장 뛰어난 바리새파 학자 가말리엘(행5:34)의 문하생(22:3) 그의 증언(갈1:14)

유대교의 바리새파, 확고한 확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

빌3:5-6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순교자 스테반,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음(행7:58)

다마스쿠스 도상의 변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회심한 것을 세 번이나 기술한다.

행9:1-2

바울의 생각: 그리스도교가 옳으면 자기의 믿음은 붕괴된다. 지금의 진화론자, 불신자들도 비슷하다.

그는 삶의 의미를 모세의 율법에서 나오는 의의 획득에 두었다. 행위, 선한 행위(빌3:6)

그의 동년배들, 그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함(3:7),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앞서나갔다(갈1:14).

그런데 기독교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죽음, 매장, 부활, 승천, 재림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기동째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의 도시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기독교인들 박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삶에 개입하셨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것을 알게 되었다(갈1:15).

누가는 사도행전 9, 22, 26장에 이 변화의 사건을 기록한다.

행9:3-9를 보자.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행9:15-16)

그의 회심 소식이 널리 퍼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급진적인 회심을 눈으로 목격함

그의 말(갈1:13, 23-24)

회심 전과 후의 그의 삶은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살인자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사실, 널리 알려짐

그는 분명하게 공적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함

그가 박해하던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바울의 다마스쿠스 회심의 핵심: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하였다.

예수님의 용서가 진짜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주님은 곧 주인

그리고 그는 사명을 받았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고전15:3-9)

딤후1:16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이유: 여기에서 나온다. 그의 회심, 이것이 사기이면 나는 끝이다. 내 믿음도 끝이다.

그런데 그의 서신서들에서 내가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사람 바울을 사랑하고 흠모한다.

30개의 이야기는 다 여기에서 나온다.

회심하였는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나의 주인이신가? 사명이 있는가? 신약 교회를 아는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아는가?

바울을 보면서 이것을 배워야 한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33:
바울은 합리적 설득을 넘어서는 영광의 계시를 보여 주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회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전격적인 회심, 이 회심이 없었다면 그의 삶은 아무 유익이 없다. 가장 중요하다.

그는 갑자기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전하는 진리를 서신서에 쓰면서 자신의 독자들이 자기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이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거의 말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 세상의 추세: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늘어놓는다.

그런데 바울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유: 그는 자기의 이 역사적인 경험의 증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신보다 더 나은 확신을 독자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딱 두 번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인자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음을 기록한다.

1. 고전9:1; 2. 15:6-8

왜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믿어야만 하는가?

분명히 바울은 자기가 살아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듣기만 하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대변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였다.

갈1:11-12(행22:17-21)

여기에 드러난 그의 논점의 핵심을 보자. 그는 자기의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왜?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뒤에 그는 13절을 말하면서 자기의 복음의 진리를 더욱 확증한다.

즉 그는 내 안에서 발생한 변화를 너희가 보고 있다. 사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던 그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는가?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역사가들이 아닌 우리는 어떠한가?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의 질문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복음은 아주 오래 전에 일어난 한 사람의 증언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의 깊은 역사가들은 증거들과 합리적 추론을 통해 바울의 설명이 진실하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럴듯한 가능성에 우리 자신의 삶을 걸어야만 한단 말인가?

만일 원시인 같은 사람들, 야만인들이 선교사를 통해 사도 바울의 복음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위해 죽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다(눅21:16-17).

혹시 순교해야 할 때 순교가 어리석음 일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의 메시지가 진리임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바울의 초자연적인 진리 변호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복음 자체의 내적 영광을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의 기초로 사용한다. 바로 이것이 나를 놀라게 한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보게 하는 다음의 심오한 말들을 보라.

고후4:4-6

먼저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 준다.

6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빛에 대하여 말한다.

빛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보라.

첫 번째 진술(4절):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서 나온다.

두 번째 진술(6절):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데서 나온다.

이것은 분명히 해나 등잔불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다. 영적인 빛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몸의 머리에 있는 눈으로 보지 못한다.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지각의 눈, 엡1:18).

그럼에도 이 빛은 물리적 빛 이상으로 실제적인 빛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바로 이 빛은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빛이다.

영광을 보는 것을 통해 안다는 것의 소중함

이 영광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영광이다.

요1:14

그런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영광을 보지 못하였다(마13:13).

요한과 베드로는 보았다(마16:17).

이것을 보는 것이 진짜를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야말로 진짜 증거이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기초이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영광 즉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였다.

나는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 자기에게 일어난 역사적 사건 이상의 것을 이야기해 감사를 드린다.

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역사적인 예수님이 없다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 매장, 부활 모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고전15:14).

그러나 역사적 증언 혹은 증거 자체만으로는 우리 혼의 내부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려면 영적인 확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

천국 지옥 간증: 고후12:1-16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 하나님의 말씀(벧후1:)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4:

바울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였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소명에 전적으로 충실하였다.

이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지만
교회에도 회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회심의 열정이 오래가지 못한다. 곧장 불길이 꺼진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물론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대개는 안락과 안전을 추구하며 산다.
그러나 살인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회심한 바울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다. 꾸준히 일을 하였다.
그의 삶: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삶,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대의를 위해 필요한 것: 단일한 마음, 이것은 아름다움이다.

나는 단일한 마음을 사랑한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일생을 바치는 것을 보기 원한다.

한 인간이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고 삶의 목표를 하나로 정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대단하다.

물론 인생의 그 목표가 가치 있을 때만 이려하다.

바울은 자기 삶의 열정을 몇 군데서 표현한다.

행20:24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잃어버리는 것이 낫다.
바울의 경우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한 길을 달리는 것이었다.

그 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바울은 달리기 이야기를 몇 차례 한다. 달려갈 길, course

딤후4:7-8

결국 그는 달리기 길의 결승점에 도달하였다.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달려가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바울은 결국 인생의 후반부에 나이가 든 채 로마로 갔다.

그런데 거기서 삶을 마치려 하지 않고 스페인에까지 가려 하였다(롬15:20, 24).

물론 그는 거기에 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불태워 소명을 이루려 하였다.

그의 열정의 열정

바울의 일편단심,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대목은 빌1:20-21이다.

바울의 일편단심 목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하튼 이런 열정 속에서 그가 살든지 죽든지 한 가지 소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으로 존귀하게
하는 것, 망원경으로 확대하는 것

빌1:20-21

바로 이것은 그의 인생의 열정, 목표를 하나로 묶어 주는 원리

인생의 모든 꿈, 계획, 전략, 운동, 메시지, 이 모든 것을 묶어 주는 열정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망원경으로 확대하는 것

빌3:12-14

이것을 고통을 통해서 이루었다,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일편단심 목표, 열정 때문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감당하였다.

거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달려갈 길을 고수하였다.

일편단심 목표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끈질긴 고통이라고 부르고 싶다.

바울의 회심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행9:16).

사실 바울이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묘사할 때 이것은 단순히 끈질긴 것만은 아니었다. 고통과 고난은 사방에서 닥쳤다.

고후11:23-28

우리가 그의 고통을 상상해 가면서 이 글을 읽으면 울지 않을 수 없다.

그에게 여러 친구가 있었겠지만 그가 느낀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밤에 다른 사람들은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 상처를 치료할 때 혼자서 자기의 상처를 매만지는 그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정상적인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말할 때 안다

물론 개중에는 그의 고통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가 이런 것을 나열한 것은 다 허풍이야!”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이것은 혹시 자랑거리를 내쫓는 미친 사람의 독백은 아닌가?”

나의 대답

바울의 사역을 꺾어내리려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후서를 수신한 고린도에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대한 신용장을 내밀었다. 이에 바울은 하는 수 없이 자기를 변명하였다.

고후11:23

이 말의 의미: 어리석은 자들만 자랑한다. 즉 그는 바보처럼 말하였다.

고후12:11

사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나는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말을 한 것을 좋아한다.

그 이유: 나는 그의 14개 서신서들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들의 칭찬이나 동정을 통해 누군가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자기 중심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정신 나간 사람과 온전한 사람의 차이: 온전한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말할 때 그는 그것을 알고 있다.

이 이유도 알고 있다. 그러면 왜 그는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 위험을 무릅쓸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고후11:11).

그는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가 당한 이런 모든 고통의 이유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나 역시 이 미친 사람 바울에 의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이 단 하나의 열정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고후6:3-10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일편단심으로 헌신함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15: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동족들을 끝까지 사랑함

지난 주, 자기의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끝까지 소명에 충실함, 고통과 함께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았다.

지난주 바울의 고통 고후11:23-33, 내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추가될 때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든 것은 24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뿐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이 구절에서는 나는 세 가지 두려움을 느낀다.

다섯 번 매를 맞는 것의 고통과 두려움

유대인들이 매를 때릴 때는 40-1, 39대, 39대를 등에 때린다(채찍질). 그것도 5차례, 아마도 같은 등에, 그것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그는 유대인을 자기 형제들, 친족들(롬9:3) 나와 함께 그가 그렇게 매질 당하는 것을 상상해 보자. 매를 세 보자. 때리는 사람이 관용을 베풀려 해도 결국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때리는 사람이 관용을 베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매질은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한 것이다. 특별히 회당과 관련된 죄에 대해

주님의 말씀 마10:17, 23:34

구약성경은 이런 매질에 대해 규정함(신25:1-3)

39대 이상 때리면 안 되는 다른 이유

이것은 사형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런 매질을 당하면 죽는 사례가 발생함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심한 매질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관대하게 처벌을 받지 않았다. 매질은 치명적이었고 39대까지 이루어졌다.

40대가 아니라 39대인 이유, 혹시 잘못 세서 이를 넘기면 회당이 고소를 당함 이렇게 5번 매질 당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사소한 부분이 아니다. 39대씩 5차례, 피부가 까지고 덮이고 하는 과정을 통해 그는 평생 걸을 때에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매질의 결과가 어떠한 것일지 묻고 싶다.

당시에는 항생제도 없었. 상처를 치유할 피부 이식 수술도 없었다. 그냥 치유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한 번 맞는 것도 힘든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일한 등에 또 맞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이번에는 치유가 더디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이런 채찍질 내가 상상해 보라고 하는 이유는 육체의 고통을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감정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들의 눈이 멀게 할 수도 있었다(행13:11, 마법사 엘루마).

그러나 바울도 하나님도 이 일을 하지 않았다.

자기를 때리는 종족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바울이 이처럼 5번 매를 맞고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다. 그는 매질을 한 유대인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았다. 더 놀라운 일이다. 로마 제국의 여러 회당에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데도 왜 그는 계속 회당에 갔을까? 적어도 2가지 이유

1. 그에게 맡겨진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

롬1:16을 보라. 그래서 그는 먼저 회당 방문, 그리고 이방인

2. 좀 더 개인적인 이유, 그는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였다.

자기 동족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다.

그래서 그는 매를 맞으면서도 동족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였다(롬9:2-3; 10:1).

이렇게 자기 동족에게 때를 맞으면서도 그가 여전히 그들의 회당에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의 사랑에 경이감을 느낀다. 어떻게 하든지 그는 그들을 구원하려 하였다(고전9:22).

바울로 인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바울 안에서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의 말씀(눅6:27-28). 실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셨다. 바울도(고전4:11-13).

바울은 자신의 상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생각하였다.

고후4:8-10

갈6:17

이런 이유로 나는 경이감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며 그를 사랑한다.

동족에 대한 사랑: 로마서, 1-8장 칭의와 성화, 9-11장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12-16장 성화와 교회 내 여러 문제

9-11장 즉 3장을 자기 민족에 대해 할애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갈6:15-16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국 민족, 이미 믿은 사람들,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교회, 바른 사회, 바른 국가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16: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한다**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그에게 큰일
그러나 그런 아픔과 고통은 결코 그를 불평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런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 많은 목적에 대한 만족을 얻었다.

나는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경우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내가 보니 불평하지 않는 것은 현 세상에서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덕목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더해지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매력적인 성품이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품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한 상황을 바꿀 수 있음에도 많은 경우 안 하신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가? 바울은 바로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감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죽기 일보직전까지 간 적이 많다.

고후1:8-10

이 구절에는 세 가지 놀라운 것이 드러난다.

1. 고통의 정도: 죽음의 선고

2. 이 고통의 목적: 하나님 신뢰

3.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마귀의 목적이 아니다. 마귀는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원치 않음
바울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은 진실: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점점 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한다.

그런데 매일 같이, 죽음이 가까이 오는 시점에는 더욱 더

불평하지 않는 데 필요한 핵심

하나님을 믿으면서 악한 상황이 닥칠 때에도 불평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 핵심

바울의 확신:

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2.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바울의 선을 위한 것이다.

3. 공통적으로 당하는 고통(고전10:13)

롬5:1-5

1-2절 설명

그리고 3절부터

불평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이유: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는 확신
그 결과 그에게는 끈기와 소망이 생겼다. 나에게도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주님만 신뢰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땅에서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후4장 설명

6절: 예수 그리스도

7절: 연약한 우리

8-12: 바울의 고통

13-14: 우리의 소망

고후4:16-18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인간의 삶이 고통과 병 그리고 노화로 인해 점차 소진되는 것(16)

이런 고통 뒤의 다음 장은 이 땅에서 더 큰 소망과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음 장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인생을 충분히 살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때에 어려움이 온다, 고통이 온다. 사망의 공포가 온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위해 더 큰 영광을 예비한다.

어려울 때나 편안한 때 만족하는 것

비록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특별히 하나님께는 단 한 번도.

그는 교회를 파괴하는 오류 혹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를 냄(갈1:8-9; 2:11; 5:12 등).

그는 자기의 여러 가지 부담을 표현함(고후11:28). 여러 고통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통해 그의 만족을 얻었으며 그 만족은 특별한 것이다.

그는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

빌4:11-13,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빌3:8).

또한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롬8:28; 빌1:12).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겸손하게 사는 바울을 볼 때 나는 이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7:
자기를 죽이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체험한

지난 시간까지 6번에 걸쳐 서문과 1부(바울의 변화)

오늘부터는 2부 '인간 파이퍼에게 영향을 준 사도 바울 탐구'

파이퍼는 젊은 날에 풀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를 거기서 건져 내었다.

50년 동안 기독교 희락주의를 개척하고 개발하게 되었음. 'Christian hedonism'

대학에 다니면서 믿음의 문제, 갈등

부모와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전10:31).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보여 주려고 노력함
그런데 동시에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였다(기쁨 속에서 살고 싶었다). 이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웠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배가 고픈 현상처럼.

300년 전에 스코틀랜드의 토마스 보스톤 목사의 말

사람이 무언인가를 생각하라. 사람은 (1)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 추구할 수밖에 없다. 행복 추구는
사람의 본성에 스며들어 있다. 박멸할 수 없다. 그것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2) 사람은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 사람은 자기가 많은 것을 원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므로 행복하기
위해 자기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구하게 된다.

나의 문제: 이 두 가지 동기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행복하려는(기뻐하려는) 생각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표가 타협되는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막8:34).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즉 비참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대학을 마친 뒤 신학교에 가서 바울의 서신서 연구.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그전: 성경은 진리와 지혜의 금덩어리들을 모은 책, 매일 성경으로 가서 금덩어리 한두 개를 꺼낸 뒤
그날 하루 종일 그것들을 가지고 다님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보니 성경의 기록자들은, 특히 바울은 금덩어리들을 모아 놓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함

바울을 보니 깨뜨릴 수 없는 논리로 구성된 쇠사슬로 단단하게 모든 것들을 연결해 놓음

많은 사람들은 논리라는 말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왜 이것이 내 삶을 바꾸게 되었는지 보여 주려 한다.

바로 이것을 통해 나는 내 안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려 5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자. 1장을 보자.

빌1:20-21,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
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여기의 전반부는 내 삶의 갈등의 절반을 다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열정(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현
나는 항상 그 일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함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보여 주려고 노력함

이전에 나는 이것이 내 기억이라는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금덩어리라고 생각함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금덩어리로 보지 말고 논리의 사슬에 있는 연결 고리로 볼
것을 내게 주문하였다. 다시 이야기하겠다.

바울은 20절에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려 한다고 말함

그리고 21절에는 그리하는 이유를 말함

21절의 맨 앞에는 '이는' for가 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다.

성경에는 for, because, therefore, in order that 같은 말들이 있어서 논리를 이어나간다.

그런데 나는 이전에 이런 단어들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런 단어들이 금덩어리들을 연결고리로 보고 하나의 사슬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20절과 21절을 연결해서 보니 20절의 살든지 죽든지는 21절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와 연결됨.

그래서 21절 시작 부분의 for(왜냐하면)와 두 구절에 나오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바울은 21절에서 자기 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살든지 죽든지 존귀하게 됨을 보이려 하였다.

자, 그러면 이런 논리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 내게 생긴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은 이전의 당신이 더는 아닐 것이다.

20절과 21절의 death와 die를 연결해 보자.

바울이 죽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까?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내게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다.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내게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려면 우리의 죽음을 이득으로 보면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내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 경험하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죽음이 내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죽음이 만족을 주다니? 이것은 조금 쇼킹한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배우자도 사라지고, 섹스, 아이들, 꿈, 은퇴, 취미 등이 부활 때까지 사라진다.

즉 몸과 몸이 즐기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내게 이득이 된단 말인가?

이에 대한 답이 22-23절에 나와 있다.

바울은 죽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죽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였다.

바울은 이 물리적 공간에 갇혀 있는 모든 즐거움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죽음을 이득이라고 하였다.

비록 죽음이 땅에서 이런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가지만 죽음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까이 체험하게 한다. 이것이 이득이다.

빌3:8에서 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젊은 시절의 갈등 풀기

빌1:20-23을 통해 논리의 사슬을 알게 됨.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가?

바울의 대답: 우리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려면.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보다 그분이 더 내게 더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체험이 될 때 가능

내게는 이것이 참으로 놀라웠다.

하나님께 영광, 나의 기쁨 이 둘 사이의 갈등을 푸는 요소

바로 이것을 통해 나는 기독교 희락주의(Christian hedonism)를 출생시켰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지난 50년을 살아왔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가장 만족하게 될 때(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따라왔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논리에서 나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빌1:20-23 요약,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으면(기뻐하면) 그분은 나로 인해 존귀하게 되신다.

그것도 내가 고통과 죽음을 통해 만족을 얻으면

나는 이것을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부른다.

내게는 이것이 갈등을 푸는 동력이 되었다.

이를 통해 나는,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만족을 얻으려는 나의 열정이 충돌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바울의 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기뻐하는 것)으로 인해 존귀하게 되신다 (Yes!).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을 배제한 채 존귀하게 되신다(No!).

즉 그분은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으신다. 바로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만족하는 것, 심지어 고통과 죽음에서도, 이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내가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은 허용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내가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만족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마음 속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야만 한다. 누리기도 된다. 누릴 수도 있다가 아니다.

그 이후로 나는 성경에 바로 이 진리를 보게 되었다.

시37:4, 32:11, 빌3:1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욕구가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고귀한 일이 아니라 사실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당신은 금보다 더 귀중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누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당신은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당신은 생명 샘이며 기쁨의 강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아니다.

많은 경우 자기 부인은 금욕으로 봄: 이런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요청하신 자기 부인은 우리의 죄의 욕망을 부인하고 영원히 충만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막8:35)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무슨 이유로(시16:11)

젊은 날의 나의 갈등은 이것으로 해결되었다.

내 삶에서 이런 것을 발견하게 해 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도 사도 바울은 내게 큰 영향을 주었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406:

하나님을 기뻐하므로 사람들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살면서 내 만족(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까 하는 나의 염려는 해결되었다. 바울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사이에 갈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 큰 충격 바울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만족을 얻을 때 하나님이 나로 인해 영광을 얻으신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그에게 더 감사드려야 할 일이 있다.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 번째 발견: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기쁨 사이의 갈등

두 번째 발견: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려는(기뻐하려는) 욕망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욕망 사이의 갈등

사람들에게 선이 되는 것을 행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기쁨을 누린다면 혹은 추구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의 말,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전13:4-5).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라. 고전10:24

롬15:1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선이 되는 것을 행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기쁨을 누린다면 혹은 추구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것 역시 첫 번째 갈등처럼 내게는 답이 매우 절실히 필요하였다.

예수님의 말씀: 가장 큰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마22:37-38)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것과 같다(마22:39).

행복해지려는 것을 멈출 수 없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바울의 대답: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것도 넘치도록 사랑하게 된다. 사랑이 확장된다.

하나님의 기쁨은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확장되고 그래서 그들도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

바울의 예

고후8:1-2,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넘치는 기쁨은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들의 죄 용서됨, 지옥 정죄에서 벗어남

성령님의 내주, 소망이 가득함,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1)

그래서 이 기쁨이 사람들의 사랑으로 나타남(2절): 그들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8)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은 보기보다 대단히 심오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한다.” 행복하려면 사랑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문제를 너무나 간단하게 보는 것이다.

요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후하게 베푸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흘러넘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남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려고 노력해라. 넘치는 기쁨이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 하게 함(2)

너무나 큰 발견이라 이것이 성경에 있는 진리인지 확인하려 함
나의 기쁨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의 관계

롬12:8

히10:34

고후9:7(Y)

벧전5:2(Y)

히13:17

내게는 이것이 매우 놀라웠다. 이것은 대단한 발견이었다. 삶의 여정을 바꾸는 발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산물

No!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Yes!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합시다. 그러면 그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기쁨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인내하듯이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희생의 사랑이란 말에서 ‘희생의’라는 말은 역설적이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고난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 시대에서는 사랑은 종종 고통을 요구한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도 요구한다.

바울의 말(골1:24; 고후7:4; 롬5:3)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유

1. 예수님의 말씀(행20:35):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
2. 우리 가운데 일부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눅21:16, 18). 주님의 말씀(요11:26): 사람을 우리를 죽일 수 있어도 우리는 영원히 산다.
3. 우리의 보상이 하늘에서 크다(마5:12)
4.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왔다(히12:2).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늘 생각한 것 고후6: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슬퍼하면서도 항상 기뻐한다. 순서대로가 아니라 동시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늘 부른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르게 한다.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막8:35).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희생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다.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 된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랑한다면 대상들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부담으로 느낄 것이다.

히13:17의 의미,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계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불평하면서 사역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을 돌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바울의 말(고후2:3):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확신하되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로 확신하였노
라.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
사랑과 기쁨은 함께 나아간다.
가장 큰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희생적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